

지역 소식통

고창나들목공원 물놀이장

27일부터 정식 개장

고창군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고창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을 오는 27일부터 정식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장기간은 8월26일까지이며, 초등학생 방학 전인 6월27일부터 7월19일까지는 월, 화, 수요일에 휴장하고 방학기간인 7월20일부터 8월26일까지는 매주 월요일에 휴장한다.

또한 개장기간 중 우천 시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2세 이하 초등학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 인원은 오전과 오후 각 200명으로 제한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100% 현장 접수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현장접수 70%, 사전 예약 30%(오전 60명, 오후 60명)으로 운영된다. 입장료는 무료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백일해·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고창군이 영유아 감염 차단과 여성 암 예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예방접종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00명 규모로 추진되며, 향후 4년간 총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먼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27~36주)와 출생 전·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직계존속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와 가족이 함께 예방접종에 참여함으로써 영유아 건강 보호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HPV 무료 예방접종은 18~26세 여성 군민으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HPV 감염을 예방해 여성 암 발생 위험을 줄인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보건소 예방접종실(560-875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연 속 아름다운 추모공간 문 열어

부안노을자연장 준공식 개최... 7100기 규모 자연장 조성· 품격있는 장사문화 기대

부안군은 오랜 준비 끝에 군민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할 부안노을자연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첫 삽을 뜬 지 3년 만이다. 이번 준공은 단순히 장사시설 하나가 들어선 것을 넘어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장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복지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하서면 장신리 일원에 들어선 부안노을자연장은 총사업비 84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잔디형 자연장 5500기와 수목형 자연장 1600기 등 총 7100기 규모로 조성됐다.

그동안 부안에는 자연장 시설이 없어 많은 군민들이 인근 지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비몽 부몽은 물론 고인을 멀리 모셔야 하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부안군은 오랜 준비 끝에 군민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할 부안노을자연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졌다. 고향에서 태어나 살아온 군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과 함께 부안에서 영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설자연장지는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마무리하는 또 하나의 복지 공간"이라며 "출생과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를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군민 누구나 존엄한 삶과 품격 있는 마지막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25일 고창군보훈회관 다목적실에서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

고창군,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개최... 모범보훈대상자 표창 등

고창군이 25일 고창군보훈회관 다목적실에서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조민규 군의장 및 군의원, 보훈단체 회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는 6·25전쟁 관련 식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모범보훈대상자 표창, 6·25참전용사 격려품 전달, 감사의 순편지 및 꽃전달, 기념사와 축사, 만세삼창,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창보훈이 나눔이 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의 순편지와 꽃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면서 세대 간 소통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모범보훈대상자 4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서부보훈지청과 함께 6·25참전용사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칠보면 '농촌유학가족거주시설' 준공

시산리 일원 10가구 규모 체류형 거주 단지 조성 완료... 8월부터 본격 입주 시작

정읍시, 칠보면 '농촌유학가족거주시설' 준공... 인구 유입 마중물 기대. 정읍시가 농촌 유학 가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칠보면 시산리 일원에 10가구 규모의 체류형 거주 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4일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일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해 임승식·영영선 도의원, 최훈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과보고를 듣고 축하 인사를 나눈 뒤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환영했다.

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거주 환경을 반영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후 약 9개월 만에 완성한 이 단지는 공동이



용 시설 1개 동과 단독주택 10세대로 이루어졌다.

각 주택에는 개별 텃밭과 가구, 가전제품 등 필수 생활용품을 갖춰 입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현재 2학기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그동안 거주 공간이 부족하거나 불

편해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시는 관내 최초로 조성한 맞춤형 주거 시설이 유학생 증가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이 인구 감소 위기에 빠진 지역 사회와 농촌 학교를 살리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6 물빛축제' 먹거리·체험 운전자 21곳 모집... 7월 1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오는 7월 31일부터 사흘간 정읍천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정읍물빛축제'에 참여할 먹거리 트럭(푸드트럭)과 체험 행사 부스(운영자 21곳)를 다음 달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역 상인들의 축제 참여를 이끌고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먹

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모집 대상은 정읍에 주소지를 둔 업체나 단체다. 전체 규모는 총 21곳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간식 먹거리 11곳, 먹거리 트럭 4곳, 주류 4곳, 체험 공간 2곳이다. 먹거리 구역은 전, 꼬치, 분식, 후식

등 종류별로 나눠 운영한다. 주류 구역과 먹거리 트럭도 함께 배치해 축제의 흥성함을 더한다. 체험 공간은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컵빙수와 화제 만들기, 야광 부채 만들기 등 여름 축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꾸릴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전통시장 안전·질서 두 토끼 잡는다

민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개최

정읍시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4일 섯고을시장과 우암로 상점가 일대에서 보행로 확보와 소방차 길 터주기 등 기초질서 확립 운동(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시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시기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섯고을시장 상인회, 정읍소방서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한 걷기 환경을 제공하고 상인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접 현장을 살폈다.

점검단은 시장 내부와 초산로, 우암로 일대를 돌며 상가 앞 고객석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기준을 넘어 보행로에 물건을 내놓은 점포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안내하는 행정지도도 실시했

다. 이어 우암로 상점가 구역에서는 보행자 통행 방해하지 않도록 햇빛 가리개(선가드)와 접이식 비가림막(어닝) 설치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화재를 비롯한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실전 훈련도 함께 열렸다. 정읍소방서가 주관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통해 점검단은 시장 안쪽 긴급 차량 출동로를 직접 살피고 진입 공간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시장 구석구석에 안전문화를 퍼뜨리는 기회로 삼았다.

시는 상인들의 꾸준한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시장 자체 안내 방송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다. 이번 활동이 일회성 행사가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분기마다 민관 합동 점검과 환경 정비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